

제 3 편 효행과 고사



제1장 정조대왕과 효행

조선조 제22대 임금인 정조대왕은 부친 사도세자의 비참한 죽음을 늘 애도하여 오다가 왕으로 즉위한 뒤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친에 대한 사모의 정을 표현하였다.

그 중 가장 큰 역사적 업적으로 손꼽히는 것은 조선 후기의 수원 신도시 건설과 화성(수원성) 축성이다. 정조는 왕으로 즉위한 뒤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의 화산으로 옮기고 빈번히 찾아 둘러 보았다. 정조대왕의 융릉 참배는 백성들에게 큰 관심거리중 하나였으며 효심을 일깨워 주는 행사로서 국가의 평온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 또한 정조대왕은 수원의 지지대 고개와 화산릉, 수원 일대에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였는데 지금도 지지대 고개에서 효행공원을 거쳐 노송지대에 이르는 길과 화산릉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나무는 수령이 200년이 넘는 것으로 굵은 가지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하늘로 거침없이 치솟아 정조대왕의 위업을 지켜보고 있는 수원의 명물로 손꼽히고 있다.

1. 정조대왕의 효행과 용주사

용주사는 수원지방의 근대사를 형성하는 중요사적이다. 정조대왕은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용주사를 창건하여 부친의 명복을 빌고 영혼을

편안하게 모셨다.

한편 용주사 창건에 소요되는 8만 7천냥을 거출하기 위해서 조정의 모든 기구와 지방수령 그리고 지방별로 불교대표들로 구성되는 모금액을 두었다. 용주사는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와 달리 억불숭유정책을 펴던 조선왕실에 의하여 건립된 절이기에 더욱 뜻깊으며 불교중흥의 계기가 된 곳으로 당쟁에 휘말려서 권위를 잃었던 왕권의 확립을 시사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사찰이다. 1790년 보경스님에 의하여 신라 갈양사 터 위에 세워져 도총섭을 둔 국가적 대찰로 불자의 행실을 다스리는 전국 오규장소의 하나가 되었고, 대웅보전, 천보루, 지장전, 선당, 승당, 향로전, 범종각 등이 있었으나 한국전쟁때 향로전이 불타 없어졌던 것을 1991년 중건했다. 용주사는 그후 왕사의 권위를 유지하며 화성군, 평택시, 안성군, 이천시, 용인시, 여주군 및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과천시, 안양시에 소재한 62개소의 절과 암자를 거느리고 있는 대찰로 성장해서 대한 불교 조계종 제2교구의 본사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용주사는 경내 어느 한구석 소홀한 곳이 없는 사찰이다. 건축 당시부터 전국에서 이름있는 목수, 석공, 화공등이 참여하여 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왕권의 주도로 추진되어 조정의 예산 뒷받침을 받을 수 있었던 용주사 건립에는 전국 사찰에서 이름을 날리던 승장들이 모여 불교중흥의 계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조선중기 목조건축 기술의 모두가 집약된 귀중한 문화재가 되었다.

용주사 창건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5층석탑과 3층석탑은 고려초기의 것으로 전하는 신라 갈양사의 유물이고 국보 120호의 범종은 종 표면에 당초무늬와 선녀가 구름을 타고 나르는 비선상으로하여 예술적 가치가 높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네 군데 유곽안에 도열된 36개의 찻꼭지는 삼존불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 범종의 무늬를 들여다 보고 있노라면 우리조상들의 심미안과 금속가공기술의 정교함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용주사 소장 문화재는 효와 관련된 문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권선문〉, 〈상량문〉, 〈어제불불기복계〉등은 정조대왕의 효행과 용주사 창건의 계기 등을 기술한 문서로 현재까지 그 때의 그윽한 향을 담고 있다. 정조대왕은 효자를 기리기 위해 용주사에 특별한 물품을 하사하였는데 효의 결정이라 할 수 있는 경판을

내려서 사용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그 경판은 일년에 한 번씩 인쇄되어 정조대왕의 효를 기리게 한다. 정조대왕이 1796년 용주사에 내린 경판은 목판 42매였고, 정조대왕의 뒤를 이은 순조도 효행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부모은중경을 용주사에 하사하였다. 부모은중경판의 내용은 자식된 자로 부모님이 자신을 낳아준 은혜를 부처님에 비유하는 글과 부모님의 열가지 은혜를 글과 그림으로 설명한 본문, 그리고 효의 막중함과 효행의 결과를 보여주는 결문으로 나뉘어진다.

용주사에는 정조대왕이 하사한 청동향로와 금동향로가 있는데 두가지 모두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이 밖에도 궁중에서 사용하던 병풍과 안성 칠장사에서 가져온 〈인목대비 친필〉, 화성 만의사에서 가져온 〈목조불상〉, 궁중에서 내린 제사용품 등이 현재 보물로 소장되어 있다. 대웅전에 모셔진 삼존불과 김홍도가 그렸다는 후불탱화는 석가모니, 약사여래, 아미타불을 담고 있는데 석가모니로부터 불법의 근원을 구하고 약사여래로부터 무병장수를 소했으며, 아미타불로부터 극락정토를 기원한다는 내용이다. 효행과 나라 평안과 국민 건강을 빌었던 정조의 큰 뜻이 담겨있는 용주사 대웅전 앞뜰에는 정조대왕이 심었다는 회양목이 지금도 자라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으며 눈길 닿는 곳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비는 정성과 효심이 가득하다.

2. 용 룡

정조는 1776년 즉위하였다. 학문이 해박하고 총명하며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참한 최후가 천추의 한으로 가슴에 맺혀 그의 평생을 슬픔으로 사모하였다. 그러나 전 임금인 영조의 엄중한 분부를 저버릴 수 없어 즉위한 직후 당시의 주모자 몇명만 단죄 하였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가 양주 배봉산에 있는 것을 슬퍼하여 사도세자의 존칭을 장헌세자로 고치고 묘의 이름을 경모궁(景慕宮)이라 하였다.

이 묘는 갑자기 만들어서 초라하기 한량 없었다. 정조는 어찌하면 불행하게 뒤주 속에 갇혀 죽은 아버지의 원을 풀어 드릴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침 왕 13년(1789년) 7월에 박명원이 왕의 뜻을 짐작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상

소하여 새로 좋은 지역을 잡았으니 이곳이 바로 수원의 화산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화산 바로 밑에 있는 수원의 읍치를 지금의 팔달산 밑으로 옮기도록 하였고 새로 정한 화산의 묘역을 현릉원이라 개칭하고 왕이 친히 양주에 있는 룡을 개렴(改殮)하고 그 이튿날 양주를 떠나 과천을 거쳐 화산에 이르러 10월 7일에 지금의 자리에 고이 모셨다.

정조는 친히 지문(誌文)을 무덤 속에 넣고 목이 매인 채 눈물을 흘렸다.

‘……오호라, 소자가 불초하여 천지에 사무치는 원통함을 품은 채 죽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흙이나 돌덩이와 같이 어둡고 구차하며, 완전한듯이 살아 온 것은 장차 보위의 승통과 막중한 국권의 맡겨짐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낱아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큰 원한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으로 비옵나니 하늘이여! 하늘이여!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늘이 좇아 주셨습니다. 소자 감히 여기에 반드시 이렇게 한 뒤에야 소자의 삶이 천하후세에 떳떳하다 말함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10월의 싸늘한 바람도 개의치 않고 친히 룡 공사를 감독하여 10월 16일에 마무리 지었다.

이 룡 이름은 용릉이라 하였다.

왕은 해마다 화산의 현릉원을 참배 하였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푸른 솔밭아래 쓸쓸히 잠들어 있는 비명에 간 아버지를 생각하여 뒤를 돌아다보며 행차를 멈추게 했다.

지금의 지지대 고개인 화성과 광주(지금은 수원과 의왕)의 경계가 되어 있는 이 고개에 이르러서는 뒤돌아보며 이 고개를 떠나지 못해 번번히 어가를 멈추게 하여 현릉원에서 이 고개까지 수십리 길 행사가 더디고 또 더디었다.

그리하여 이 고개에 작은 대를 만드니, 대와 고개를 합쳐 지지(遲遲)라 이름 하였는데 지금은 대는 없어지고 고개 명칭만 지지대 고개라 하며 정조의 피맺힌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

지금도 이 지지대 고개 위에는 정조의 아들 순조가 부왕의 지극한 효성과 행적을 새긴 지지대비가 서 있다.

3. 3년만에 완성된 수원성

정조대왕은 수원성 축성을 시작한지 일년만인 1795년 2월 13일 회갑을 맞이하는 모친 혜경궁홍씨를 위로하기 위해 수원에서 회갑연을 베풀 것을 결심하고 수원의 사대분을 비롯한 성곽과 행궁의 건립에 박차를 가하도록 명령한다. 1795년 2월 13일 회갑이 며칠 남지 않은 2월 9일, 수원으로 가는 첫 행차가 시작됐다. 2월 11일, 한양에서 수원에 이르는 뚝방 통로의 백성들에게 끼친 민폐를 보상하려는 뜻에서 화성, 광주, 과천, 시흥의 4개읍 선비들만 참가할 수 있는 특별 과거를 베풀었다. 2월 11일에는 서장대에 올라 수원팔경을 조망하여 아름다운 경치에 탄복하고 저녁에는 사대문에서 축포와 함께 불꽃탄을 쏘아올려 불꽃놀이를 하며 화성 백성을 위로하고 어머니의 회갑 전야를 함께 기뻐했다. 2월 13일, 꽃으로 치장한 행궁의 봉수당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여니 여기에 참석한 공식 수행원과 초창인사가 1만 2천여명에 이르렀고 오늘날 화폐가치로 33억원이 소요되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2월 14일에는 행궁안의 낙남헌언에 남시어 백성들에게 양곡과 비단, 포목 등을 하사하면서 양로잔치를 베풀고 동장대(연무대)에 들려 활을 당기는 등 화성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고, 백성들은 정조대왕의 효성을 칭송했다. 이 기록은 당시 이회평이라는 선비가 쓴 <화성일기>에서 발췌한 화성행궁 5일간의 체류기로서 화성행궁은 수원성곽의 부속건물로 현재 <낙남헌>만이 남아있다.

세월은 흘러서 1801년 정조대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순조는 행궁옆에 화령전을 지어 정조의 진영을 봉안하고 6년후인 1807년에는 지지대에 지지대비각을 세워 정조대왕의 효성심을 후세에 다시 알리었고 <효의 고장 수원>의 이미지는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4. 화성행궁의 건립과 배경

화성행궁이 지어진 것은 수원부가 새로운 장소로 옮겨지고 나서 부의 주변에 성곽을 새로 축조한 시기인 정조 20년(1796년)이다.

화성행궁은 정조의 친부인 사도세자의 묘인 현릉원에 행차할 때 머물기 위한 처소로 마련되었던만큼 이 행궁은 정조대왕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정조는 항상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부친에 대하여 슬픈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즉위한지 13년 뒤에 경기도 양주땅 배봉산에 있던 부친 사도세자의 무덤을 당시 조선의 일등 명당지로 일컬어지던 화산으로 옮기고 그 명을 현릉원이라고 정하면서 왕은 수원읍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명하였는데 이 때가 정조 14년(1789) 7월 이었다.

새읍은 지금의 팔달산 아래로 정해지고 읍에 살던 주민들을 이주시켰는데, 나라에서 10만량의 돈을 내어 이주비용에 쓰고, 신읍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10년동안 면세의 혜택을 주었다. 이와 동시에 새 수원읍의 치소를 건설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후에 화성행궁으로 되는 건물인 것이다.

수원의 신읍건설은 정조 13년 7월 11일에 발의가 되어 불과 4일후인 15일에는 이전할 위치가 결정되고 그 해 9월에는 새읍에 향교가 건설되었으며 이듬해 2월 19일에는 읍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당시 세워졌던 읍치의 주요 건물은 관아와 객사 그리고 향교였다.

이렇게 해서 정조 13년에는 사도세자의 무덤이 옮겨지고 그에 따라 수원읍이 새 장소로 이전되어 여기에 새 치소 건물이 마련되었는데, 새 읍치가 완성되자 곧 이어 이 읍치의 주변에 성곽을 쌓아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조 17년 정월에 수원 부의 명칭을 화성으로 고치고 고을을 유수부로 승격시켰으며 드디어 그 해 12월에는 본격적인 축성공사의 준비에 들어가 이듬해 2월에 공사가 개시되었다. 성곽은 2년반의 세월이 흐른 정조 20년(1796. 9. 10)에 완성되었는데, 바로 이 때 기존의 읍치 건물을 대폭 수리·증축하여 화성행궁을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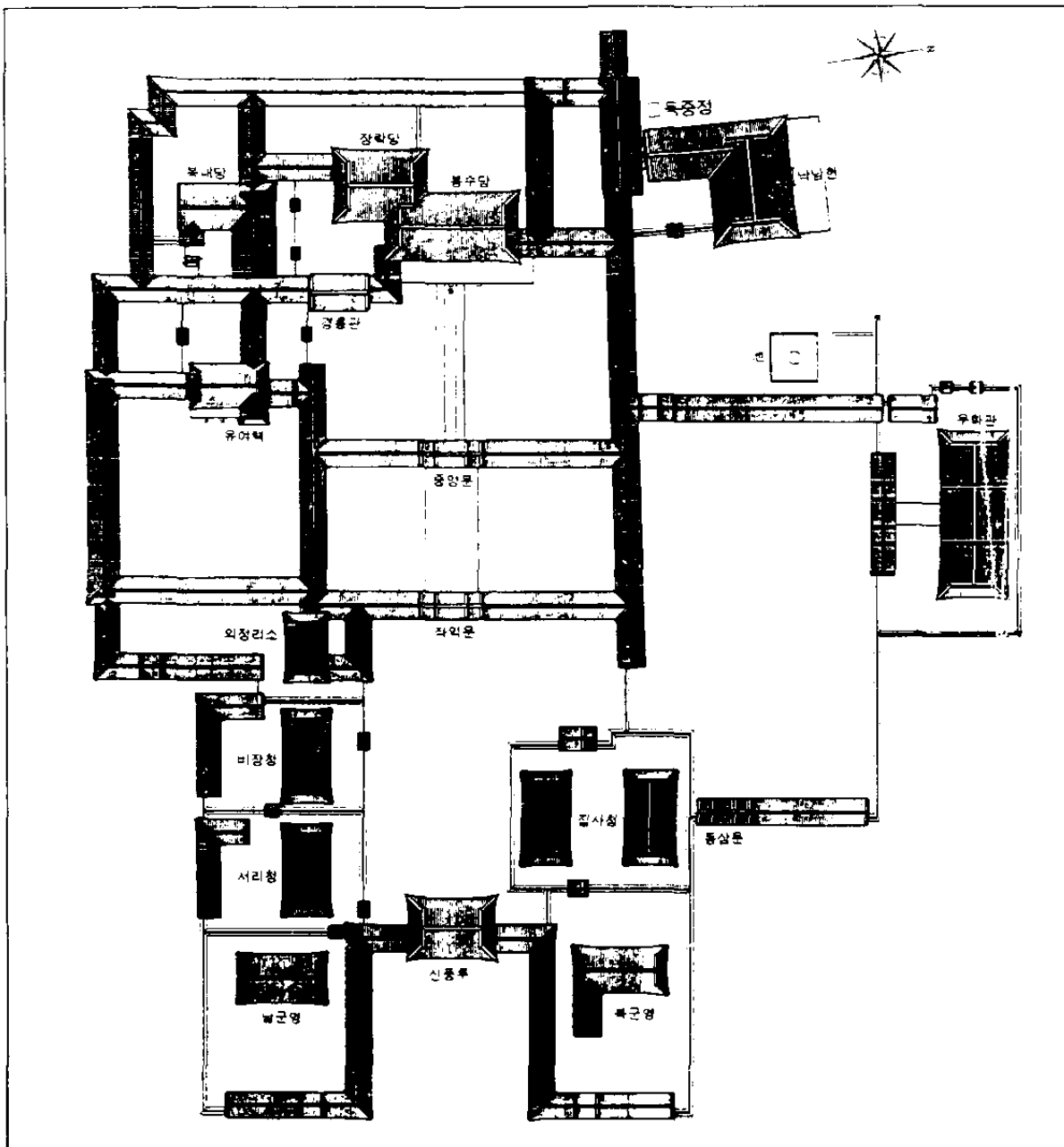
이 때 지어진 화성행궁의 모습은 일부 사료에 그림으로 전하고 있어서 당시의 건물 규모를 파악케 해 준다.

이 사료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조 20년의 수원성과 화성행궁 축조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긴「화성성역의궤」와 「정리의궤」가 있다.

정조가 지극한 효성으로 부친 사도세자의 묘을 참배하기 위하여 건립한 화성행궁은 그 규모로나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수원성과 함께 정조의 위대한 개혁의지가 담겨있는 건물이다.

○ 화성행궁 배치도



▲화 성 행 궁 도

조선조 제22대 정조 18년에서 20년 사이에 수원성곽을 축성하고 팔달산 기슭에 행궁을 건립하였다. 정조는 효성이 지극하여 선왕의 원침에 자주 전배하고 이 행궁에 머물렀다.

이 행궁에는 장락당을 비롯해서 봉수당, 경룡관, 복내당, 유여택, 좌익문, 동삼문, 별주, 득중정, 신평루, 남·북군영, 외정리소, 집사청, 서리청, 비장청, 우화관, 중앙문 등 많은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행궁의 건물을 다 없어지고 신평초등학교의 교정에 낙남헌만이 남아있다. 수원시에서는 1996. 7. 18 화성 행궁터를 전 도립병원 자리까지 확장하여 28,737평의 부지위에 총 897억원의 비용을 들여 2012년까지 복원하기로 하고 가공식을 가졌다.

5. 정조의 효행사 요약

- 1735년 영조의 둘째아들 사도세자 탄생
- 사도세자는 영조 후궁 영빈씨 몸에서 출생, 이름을 선이라 했으나 정실에서 태어난 효장세자가 죽자 2세의 나이로 왕세자로 책봉됨.
- 10세때에 영의정 홍봉한의 딸 혜경궁 홍씨와 결혼
- 14세때에 영조를 대리하여 국정을 맡음.
- 당파싸움의 와중에서 정신병 증세가 있는 폐인으로 몰려 26세에 어전에서 자살을 명령 받았으나 죽지 못하자 서인으로 폐해진 뒤 뒤주 속에 넣어져 8일만에 사망
- 영조는 아들이 죽자 당파의 영향으로 아들이 죽게 된 것을 후회하고 사도라는 시호를 내림
- 정조대왕은 사도세자의 아들로 10세에 부친의 죽음을 목격한 비운의 임금이 됨.
- 1789년 화성으로 영우원을 천장하여 현릉원이라 칭함
- 1790년 용주사 건립
- 1790년 현릉원에 첫 참배
- 1794년 2월 28일 수원성 축성 시작
- 1796년 9월 10일 수원성 완공. 그로부터 5년후 정조의 뒤를 이어 제23대 순조임금이 즉위하여 정조대왕의 효행업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전개
- 순조임금이 화령전을 건립하고 정조의 영정 봉안
- 정조대왕의 한이 서린 지지대에 <지지대비>를 세움.
- 사도세자의 부인 혜경궁 홍씨(경의왕후)는 그가 궁중에서 겪은 회한의 나날을 적은 회고록인 <한중록>을 남겨 당쟁의 비사와 궁중 문화의 우아함을 후세에 남김.

제2장 효자·효부

○ 최루백

최루백은 고려 때 사람이다. 수원부의 아전으로 여러번 옮기어 기거사인과 한림학사에 올랐다. 1205년 12월 1일은 수원효자 최루백이 죽은 날이다. 한림학사를 지냈다는 최루백은 1백살 훨씬 넘게 살다가 죽었고 그 효행이 남달라 오늘에까지 전하고 있다. 고려중기 때의 사람으로 수원지방의 이름없는 마을 촌장이었던 최상저의 아들 최루백의 효행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왔고 이로 인해 7백여년 후에 화성군 봉담면 수기리 수기촌 일대가 효자마을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다. 이 효자마을의 칭호는 정조대왕이 내린 이름으로 최루백의 효행을 듣고, 크게 감격한 정조대왕은 융능을 마련할 때 수기리 수기촌 지역이 명당임에도 불구하고 효자마을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융능 후보지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하는 등 선인들의 효행을 기렸다. <동국여지승람>, <고려사열전>, <세종실록지리지>, <상감행실도>, <오륜행실도> 등의 고문과 중국의 <해동금석원> 그리고 최루백의 묘비석, 수원 최씨 족보 등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최루백이 호랑이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루백이 15살 되던 어느날 그의 부친 최상저가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루백은 모친에게 호랑이를 잡겠다는 뜻을 밝히자 모친은 <네가 어찌 아버님도 잡지 못하는 호랑이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하고 극구 만류하자 최루백은 <어찌 자식이 아버님의 원수를 알고도 갚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머님 염려하지 마옵소서. 소자가 기필코 아버님을 해친 그 호랑이를 잡아 자식 된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도끼를 메고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 추격을 시작했다. 이 때 사람을 삼켜 배가 부른 호랑이는 양지바른 따뜻한 곳을 찾아 잠을 자고 있었다. 드디어 집채만한 커다란 바위 위에서 호랑이를 만난 최루백은 단숨에 호랑이 머리를 부수어 죽인 후 배를 갈라 부친의 유골을 수습하여 홍범산 서쪽에 장례를 치루고 호랑이 고기는 두고 두고 먹었다고 한다. 최루백은 그 후 1백살이 넘도록 장수하였고 벼슬이 한림학사에 이르도록 학문에 열중하였는데 고려말 포은 정몽주는 최루백을 일러 <학문을 통달하고 품행이 모든사람의 귀감이 된다.>고 칭송하였다.

용건릉이 자리잡은 곳으로부터 1km 동북방향에 있는 홍범산, 홍범사가 있는 동네가 바로 효자마을이고 이 효자마을에는 최루백의 효행을 기록한 6백년된 비석이 있다. 이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 기슭에 집채만한 넓적한 바위가 있는데 호랑이가 낮잠자다 최루백의 도끼에 죽게된 바위로 주민들은 효암이라고 부르고 있다.

○최세호

효자 최세호는 조선 성종 때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가 오랜 병환 끝에 위독하게 되자 넓적다리의 살을 베어 약과 함께 달여 드렸더니 곧 병이 쾌차하였다고 하여 성종 9년 효자정문이 내려졌다.

○박장철

조선후기 동탄면 장지리에 본관이 밀양인 박장철은 부모에게는 효성을 다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는 남다르게 노력을 아끼지 않은지라 이웃의 칭송이 자자했다. 갓은 어려움속에서도 귀한 송이버섯과 쇠고기를 구해 부모를 지성으로 모셨다. 한번은 이웃에 불이 났는데 많은 동네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애썼으나 오랜 가뭄의 끝이라 쉽사리 불길을 잡을 길이 없었다. 이에 박장철이 혼신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도 감동했는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무사히 불을 끈 일이 있는가 하면, 순조 28년 흉년과 전염병이 창궐하매 누구도 꺼리는 환자구호와 빈민구제에 헌신하니 그를 칭송하는 소리가 백리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가 별세하자 수백인이 그의 상여를 따르며 애도하였고, 유림들이 그의 효행과 착한 마음을 나라에 알리니 고종22년(1885) 5월 1일 효자정문이 내려져 효자가이 건립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배천해

배천해는 일찍이 무과에 급제해 선전관을 지내던중 벼슬이 올라 만호·감옥관으로 승진되던 찰라 모친이 병석에 눕게 되자 벼슬을 물리치고 밤낮으로 모친의 병구완에 힘썼다. 그의 뛰어난 효행과 행실은 당시 남양반도에 널리 알려져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 곤

홍법리 야산 기슭에 있는 효자문의 주인공 봉담면 상사리 출신으로 일찍이 문과에 급제 병조정랑, 현감 등 두루 벼슬에 있던 사람으로 효심이 지극했다. 하루는 노환으로 병석에 누운지 오랜 노모가 추운 겨울임에도 잉어와 오이가 먹고싶다 하니 노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백방으로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인간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그의 지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꿈꿨던 강물 위에 잉어가 펴떡거리며 있는지라 잉어를 구할 수가 있었다. 또 깊은 산속을 추워도 아랑곳없이 헤매다 산속 깊은 골짜기에 덩굴째 매달려 있는 오이를 발견 노모에게 봉양하니 그의 효성이 나랏님에게 알려져 영조13년 효자정문이 내려졌다.

○한몽송

한몽송은 일찍이 아버지를 따라 고기를 잡으러 갔다. 아버지가 실족하여 물에 빠져 죽으니 몽송이 물에 뛰어 들어가 아버지 시신을 꺼안고 나왔다. 그 후 나라에서 정문을 내렸다.

○이봉현

이봉현은 고려말의 유신 이집의 9세손이다.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그의 어머니가 적에게 잡히게 되자, 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봉현은 10세 소년으로 눈속에서 밤낮으로 시신을 지키느라 손가락 발가락이 얼어 빠졌다. 조정에서 그 어머니에게 복을 내리고 그 아들에게 정문을 내리니 봉현이 글을 올려 정문을 어머니의 절과 바꾸기를 원하는지라, 인조임금께선 가련히 여기시고 그 모자에게 다 같이 정문을 내렸다.

○홍여석

홍여석은 홍인서의 손자다. 부모의 병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넣어 회생시켰다. 훗날 상을 당하여서는 죽을 먹으며 시묘하였으며 제삿날을 당하면 삼삭을 소식하니 나라에서 정문을 내리고 벼슬을 주었다.

○이시구

이시구는 종실 의원군수 이유함의 아들이다. 아버지 유함의 병이 위중하게 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 넣어 넘기게 하여 회생시켰으므로 나라에서 정문을 내렸다.

○배홍중

배홍중은 그 어머니 병에 단지하여 병약하여 절명할 것이라는 모친을 50이 넘도록 연수시켰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시묘 3년을 살았으며 병자호란때 호병이 그의 아버지를 찍으려고 하자 홍중이 몸을 가로막다가 죽음을 당하여 나라에서 정문을 내렸다.

○윤필명

윤필명은 직제학 윤석보의 현손이며 감사 송월암 윤풍정의 증손이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임하자 손가락 자른 피를 약에 타서 드리자 깨어났다. 상을 당하여서는 시묘 3년을 살아서 나라에서 그 가문에 정문을 내렸다.

○박우만

박우만은 감사 박처윤의 5세손이다. 부모의 병환이 위중할 때마다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르로서 그 때마다 효험을 보았다. 백헌·이경석과 동춘·송준길이 효행을 천거하여 나라에서 정문을 내렸다.

○고경천

고경천은 문벌이 한미하고 또한 학문에 어두우나 정성과 효성을 타고나와 겨우 여섯 살 때 집에 불이 나서 모두들 우왕좌왕 할 때 경천이 신주를 꺼안고 나와 분실을 면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기특하다고 하였다.

○한슬매

한슬매는 처지가 한미하여도 효심이 두터웠다. 아버지가 두통을 앓았는데 마침 올며 들어온 비둘기가 집안 깊숙히 들므로 잡아드리니 아버지의 병이 낳았다. 또 병이 들자 꿩과 기러기가 마당 가까이 내려온 것을 잡아드리기도 하였다. 마침내 부친이 위독하게 되었을 때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여 3일간 명을 연장하기도 했다.

○ 윤형노

윤형노는 참봉이다. 부친 병환에 손가락을 잘라 하루나마 연명하게 했다. 순조 4년에 지평벼슬을 내렸다.

○ 최도문

최도문은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이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너무 슬퍼하던 나머지 3년상을 마치지 못하고 마침내 죽었다. 순조 13년 직을 증하고 정문을 내렸다.

○ 최수복

최수복은 진사로 최도문의 아들이다. 어머니 상을 당하여 피가 나도록 울다가 죽었다. 순조 13년에 직을 증하고 정문을 내렸다.

○ 김성렬

김성렬은 어머니 병환에 변을 맛보고 손가락을 끊어 수혈하였으며 할머니 병환을 간호하되 30년을 하루와 같이 하였다. 순조 13년 동봉교관을 증하였다.

○ 송린상

송린상은 어머니 병환에 변을 맛보고 단지 진혈을 하여 수일을 더 연명하게하여 순조 19년에 그의 집을 복하여 주었다.

○ 최종술

최종술은 부친 병환에 변을 맛보며 상을 당하여서는 슬퍼하다가 병이 되니 순조 19년 그의 집을 복하여 주었다.

○ 신사하

신사하는 어머니 병환에 변을 맛보며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였으므로 순조 31년 동봉교관을 증하였다.

○최정린

최정린은 아버지가 종기를 앓자 다리를 찢어 피를 내어 종기에 붙이자 바로 종기가 나왔다. 순조 31년 동몽교관을 증하였다.

○장용건

장용건은 아버지가 병이 난지 여러달만에 변을 맛보더니 병세가 바뀌자 손가락을 잘라 바치어 십여년의 수명을 연장하였으므로 순조 31년 동몽교관을 증하였다.

〈효 부〉

○수성 차씨

수성 차씨는 정노위 김복량의 아내다.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그 남편이 의병으로 출정하게 된 전날밤의 일이다. 두 사람은 날이 새기 전 별리의 정을 나누면서 차씨는 남편에게 청하여 그 잔등에 검은 글자로 글씨를 써 문신을 하였다. 먹글씨를 바늘로 찢러 나갔다. 바늘 자국마다 먹글씨에 피가 맺혔다. 전쟁에 나간 남편은 전사했다. 많은 전사자 가운데서 남편의 시체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과연 차씨가 생각한대로 남편 등에 새긴 문신으로 해서 남편의 시체를 찾아낼 수 있었다. 남편을 장사지낸 후 죽으로 3년을 지내며 시부모를 모시고 섬으로 피난가서 효성을 다하여 봉양하였다. 이를 나라에서 알고 정문을 내렸다.

○함양 박씨

함양 박씨는 이규영의 처이다.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남편 이규영이 전사하자 시부모를 모시고 해서로 피난 가다가 적을 만났다. 적에게 욕을 당하게 되자 그는 남편의 집 신주를 등에 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라에서 정문을 세워 그 혼을 위로했다.

○안동 김씨

안동 김씨는 영장 최종두의 아내다. 시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었으므로 나라에서 그 집을 복하여 주고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 윤 씨

관직을 알수 없는 윤 씨는 노재중의 처다. 시아버지가 병들자 변을 맛보며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였으므로 순조 13년 나라에서 알고 그 집을 복하고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제3장 충신·열녀

〈충 신〉

○ 한명운

한명운은 좌리공신 청양군 한치의 5세손이다. 임진왜란 때 영동현감을 지내고, 상주목사에 특진되자 의병을 거느리고 나아가 적을 치라고 명하니 용진하여 분전하다가 종과부적으로 마침내 전사하니 이조판서를 증하였다.

○ 윤정준

윤정준은 무과에 올라 용진현령이 되었다. 인조2년 이괄의 반란때 적이 굴복시키려고 허를 꿔고 이를 분질러도 끝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난이 평정된 후에 판서를 증하고 정문을 세웠다.

○ 이탈만

이탈만은 충장공 남정현의 노복이다. 영조 4년 3월 김일경의 여당 이인좌등이 밀풍군으로 추대하여 병란을 일으킨 무신란때 충장공이 적을 꾸짖으며 순절하니, 이탈만이 그를 껴안고 통곡하여 적장에게 애걸하여 남정현의 시신을 북쪽 성밖에 수렴하여 거두었다. 난이 평정된 다음 음성으로 운구하여 장사지내고 3년 동안을 곡읍하고서야 돌아갔다. 정조8년 그를 포상하고 정문을 내렸다.

〈열 녀〉

○ 함안 이씨

함안 이씨는 첨정 이자건의 처이다. 인조 14년 병자호란때 며느리 나주 박씨, 용인 이씨, 손녀인 처자 이씨 등을 데리고 섬으로 피난하였다가 적병을 만났다. 욕을 피하여 고부 조손 네 여자가 모두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전란이 끝난 뒤 나라에서 알고 정문을 내렸다.

○안산 이씨

안산 이씨는 이형부의 처로서 인조 14년 병자호란때 열살난 아이를 데리고 산중으로 피난하였다가 모자가 붙잡히게 되자 아이를 데리고 물에 빠져 죽었다. 나라에서 정문을 내렸다.

○충주 김씨

충주 김씨는 박제동의 처이다. 박제동은 감사 박노의 증손이당 모친의 상을 당하여 슬퍼함이 지나쳐 1년이 못되어서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니 충주 김씨 역시 물 한모금 먹지 아니하다가, 남편 박제동이 숨지는 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조용히 자진하였다. 나라에서 정문을 내렸다.

○순흥 안씨

순흥 안씨는 최노진의 아내이다. 인조 14년 병자호란때 해서로 피난하였다가 적병이 가까이 오자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나라에서 정문을 내렸다.

○연안 이씨

연안 이씨는 최기원의 아내이다. 남편 최씨가 조사 하자 식음을 전폐하고 4년동안을 피눈물로 지내다가 필경에는 목숨을 잃었다. 나라에서 불쌍히 여기고 정문을 내렸다.

○수원 최씨

수원 최씨는 대사간 이정립의 아내다. 그의 남편 이정립이 조사하자 3년동안 곡기를 끊고 남편의 뒤를 따르고자 하더니 마침내 목숨을 버렸다. 나라에서 정문을 내렸다.

○홍 씨

관적을 알 수 없는 홍 씨는 한우상의 처이다. 남편 한우상이 죽어 장사 지내는 날 약을 먹고 죽었다. 나라에서 정문을 내렸다.

○ 밀양 박씨

밀양 박씨는 수원부의 아전 나계술의 아내이다. 그의 남편 나씨가 죽으니 유복의 아기가 있으므로 억제하고 음식을 먹더니 아기가 실수하자 8일동안 먹지 아니하고 죽어 정문을 내렸다.

○ 기계 유씨

기계 유씨는 부교 박규연의 처이다. 남편 박규연이 죽자 졸곡제의 날 약을 먹고 죽어 나라에서 정문을 내렸다.

○ 밀양 박씨

밀양 박씨는 (이미 충신조에서 소개된) 한명운의 아내다. 선조25년 임진왜란때 순절해 죽었다. 이 사실이 삼강행실에 기록되고 나라에서 정문을 세웠다.

제4장 전설

1. 꽃뒹

서울서 수원으로 오는 길,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 있다. 이곳을 지지대고개라 한다. 이 고개를 넘어서 수원성 장안문을 들어서기 전에 바른쪽으로 1km쯤 가면 경부선 철도가 있고, 그 철로변으로 집들이 50여호쯤 되는 마을이 있다. 그곳을 꽃뒹 마을이라 한다.

수원도호부 시대였던 80년 전만 해도 북부 부내 14개 동 중의 하나인 화산동이라 했었다. 꽃뒹라 부르는 산은 지금의 화서동 426번지, 약 1,500평이 된다. 이 동네는 꽃뒹란 이름 외에도 풀뒹, 풀미, 꽃미 등 여러가지로 부르기도 한다. 이 꽃뒹에 대해서 옛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으니 그것은 청결한 한 여인의 절개 굳은 애절한 사연이다. 이곳에는 옛날에 인물의 아름답기가 꽃잎같고, 목소리 곱기가 은구슬 같으며, 그 자태는 비단결같고, 걸음걸이는 선녀같으며, 품행이 압전하기로 이름난 아리따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가세가 넉넉치 못한 데다가, 병환으로 누워있는 늙은 아

버지만을 모시고 외롭게 살아가는 처녀였다. 이 처녀의 오직 일념은 늙으신 아버지의 병환을 낮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못하고 있는 농사일을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꾸려 나가야 하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와 의논을 하여 머슴을 두었다. 훨씬 수월해진 농사일이었다. 힘이 센 머슴은 동네 사람들과 품앗이를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아버지의 병간호나 집안 일들은 역시 그 처녀가 맡아서 하게 되니, 그런대로 남못지 않게 농사도 잘 짓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갔다. 그런데 이 처녀에게 귀찮은 것은 사내들의 짓궂은 연모의 호소가 빗발치듯 날아드는 청혼이었다.

사랑의 호소를 받아주지 않으면 자결하겠다는 사내들과, 가까이서 멀리서 줄지어 찾아와서 청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나이가 든 이 처녀로서도 시집가기가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구완하는 것만이 앞에 닥친 일이었으므로 언제나 사정없이 냉정하게 물리치곤 했다. 가문 좋고 돈 많은 집안 신랑감은 미남에다가 혼인만 하면 아버님 병환도 낮도록 하고, 호의 호식하고 잘 살텐데 하는 중매장이의 말도 다 물리치고 이 처녀는 정성을 다 바쳐 아버지 병환에만 전심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환은 더욱 심해가기만 했다. 하루는 아버지가 “나는 이미 틀렸으니 앞길이 구만리 같은 너나 어서 좋은 데로 시집가서 잘 살면, 이 애비도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이 아니냐!” 하니 처녀는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는 한시도 아버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버님 병환이 낫기 전에는 시집갈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하고 말했다.

부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다. 그런 어느날이었다. 하늘에서는 뇌성벽력이 대단했다. 억수같은 비가 몰아쳤다. 그때였다. 자기 집에 머슴으로 둔 총각놈이 느닷없이 무서운 눈빛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집안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한 집안 식구로서 지내오던 처지라, 그 처녀의 아리따운 자태에 항상 연모의 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머슴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다. 처음 머슴을 둘 때도 그래서 지체가 낮은 신분의 사람을 둔 것이었다. 이 처녀의 집안과는 계급의 차이로 혼인같은 건 꺼내지도 못할 위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머슴의 행동은 거칠었다. 우악스레 달려 드는 맹수와 같아 여자의 몸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 머슴은 이 처녀와 결합이

되면 그 집에서 눌러 살 작정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처녀는 굳은 절개나 자기의 가문과 전통으로 보아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이었다. 죽음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표시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병환이나 집안이 어떻게 되리라는 예측을 할 겨를도 없이 그 길로 바로 집 뒤 조그만 산에 올라 나무 가지에 목을 매고 말았다. 이 처녀의 마지막 목소리는 애절했다. “아버님 저는 어머니님 계신 곳으로 먼저 갑니다. 아버님, 이 불효 막심한 여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꽃다운 나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이슬로 사라진 한떨기 꽃이었다. 그 후 동네 사람들은 이 처녀의 시신을 자결한 자리에 정성들여 묻어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 처녀의 무덤에서는 난데 없이 꽃나무가 자라났고 꽃이 활짝 핀 뒤에는 꽃잎이 유난히도 훨훨 날려 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생전에 그렇게 지성이었던 효심과 고운 마음씨가 꽃으로 환생하여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해마다 꽃잎이 날린다고 해서 후세 사람들은 그 무덤을 꽃뒀라 불려왔으며 어느사이엔가 이 마을 이름까지도 꽃뒀마을이라고 불리우게 됐다는 것이다.

2. 팔달산 유래

고려가 망하고 이태조가 등극할 때였다. 여말에 여주사람으로서 학사 이 고가 있었다. 호는 망천으로서 공민왕때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학사로부터 대사성 집현전제학이 되었는데, 공양왕때에 와서 정란으로 나라가 점차 쇠망해감을 예견하고, 자진 은퇴하여 수원의 광교산 남쪽에 있는 탑산 밑에 살고 광교산 아래 개울에서 물에 발을 담그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 등 여러 학사들을 벗삼아 세상을 잊고 소요하며 세월을 보냈다고 하며, 그 개울을 후세 사람들은 망천이라 일러왔다고 한다. 이 고가 지내던 곳으로 학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딘지 알 수가 없고(지금의 수원시 남창동 팔달산 밑이라 함) 남쪽으로 5리쯤 가서 고기를 낚던 장소가 있다고 하나 역시 아는 이가 없다.

이 분이 사시던 뒷산을 탑산이라 했다. 올라가 보면 어느 산과도 연결되지 않은 독립되어 있는 산으로 보이며, 평지에 탑을 세워 놓은 듯, 딴 산과는 뚝 떨어져 있다하여 탑산으로 불리워 왔는지 모른다. 그 당시 공양왕은 사자를 보내어 무엇으로

소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고는 “집 뒤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사운데, 들 가운데 있는 산으로서 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보면 어디고 막히는 데가 없어 사 통팔달하여 내다 보는 시야가 탁 트이고, 또한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산이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즐거움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 이태조가 등극한 지 2년이 지나서 신조에 나와 경기 우도 안염사의 벼슬을 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하여 불렀으나,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태조는 할 수 없이 화공을 시켜, 얼마나 그 산이 좋은지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명하였다. 화공이 그려서 바친 탑산의 그림을 본 이태조는 ‘역시 아름답고 좋은 산이구나’ 하시며 크게 칭찬한 다음, 그렇다면 그 산을 팔달산이라 이름지으라고 한 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6백여년 동안 내려 오도록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팔달문도 여기에서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이 고는 평소에 효성이 지극했던 것으로 알려져오고 있다. 사람들에게 항상 가르침을 주기를 ‘자기와 이웃에 항상 착하게 하라’고 일러와서, 인근 사람들은 그분의 높은 인품과 가르침을 따라 착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후 그 동네 이름을 권선동이라고 이름지었고 팔달산의 유래와 함께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3. 목화

채제공은 조선조 정조때의 명상이었다. 호는 번암으로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오른 분이었다. 채정승은 정조의 신임을 받아 왔으며 나라를 위해 전력을 해 온 분이다. 시호는 문숙이었고 문집으로는 번안집 등이 있다. 정조께서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1793) 시켰을 때 초대 수원유수로 승임되었던 분이며, 그 후 영 중추부사로서 수원성을 축성할 당시 성역의 총리대신의 명을 받고 성축을 훌륭히 마쳤다. 채정승은 공사를 잘 분간하여 청렴한 분이었으며, 특히 성곽의 축조는 참신한 구조양식과 과학적인 기공방법에 있어 국내의 다른 어느 성곽에서보다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성곽으로 축성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그 시대는 근세후기에 있어서 가장 특색있는 시대로서, 일종의 문예부흥적인 기운이 농후했던 때였다고 할 수 있으며, 정조께서는 누구보다도 배움을 즐기어 학문에 능하신 임금님이었다. 수많은 문집 등을 저술해 내는 등, 일반적으로는 문인학자의 배출과

함께 조선조 문화에 찬란한 꽃을 피웠던 때라고 짐작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다. 정조께서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으셨고 기문책서들을 보시던 중에 한 번은 일서인 불경에서, 화도화란 기묘한 구절을 보신 일이 있었다. ‘꽃피고 복숭아 열리고 꽃핀다.’라는 뜻으로 세상에 흔히 있는 복화를 말하는 것이었다. 정조께서는 나라안에서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흔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시고, 과거 글제로 내세워 볼까 하고 마음 먹었으나, 정승인 채제공을 생각하니 그가 알고 있지 않을까 꺼려져, 선뜻 그 글제를 내세우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는 인품도 기결이거니와 글이 또한 천하 문장이어서, 아무리 어려운 글이라도 못 푸는 글이 없었다. 정조께서는 이렇듯 채정승을 훌륭한 인물로 여겨왔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글제는 덮어 두기로 했던 것이다. 그 후 채정승이 세상을 뜬 뒤였다. 과거령이 내렸을 때 이제는 그 글제를 내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비로소 ‘화도화’라는 글제를 내렸던 것이다.

이때 남도유생 하나가 과거 보러 상경하다가, 날도 저물고 시장끼가 나서, 어느 텅수룩한 주막에서 자고 가기로 하고 여장을 풀었다. 하도 먼길을 걸어온지라 피곤도 하여, 술을 몇 잔 들고 저녁을 맛있게 먹은 뒤에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나 되었는지 곤하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풍채도 좋은 분이 관복을 입고 나타나더니 “나는 고 영의정 채제공인데 이번 과거 글제로는 ‘화도화’란 것이 날테니 그것은 목화인 줄 알고 글을 쓰라”고 이르는 것이었다. 유생이 꿈에서 깨어보니, 괴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생이 묵고 있던 주막은 채정승 산소 근처임이 틀림없었다. 이 유생은 행일까 불행일까 하고 초조하게 생각하며, 어젯밤 꿈이 머리에서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한양 가는 과거길을 재촉하였다. 과거 보는 날이 되었다. 유생이 착잡한 마음으로 과거장에 들어 가보니, 전국 각지에서 과거 보러 온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었다. 글제가 나왔는데 ‘화도화’가 분명했다. 반장에 모인 선비들은 모두 제의조차 몰라서 이리 궁리 저리 궁리한들 알 길이 없었고, 찢찢매고 있을 때 유생은 마음이 설레임을 억제하고 간신히 그 뜻을 글로 지어 올렸다. 임금님께선 생각한 바가 있어, 어떠한 글이 나오나 하고 관심있게 글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런데 임금님도 깜짝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한 글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 글귀 중에 ‘열리며 맺고 피어나니 누르고 푸르며 희도다’라고 적혀 있었다. 정조께

서는 이번 글제만은 그리 쉽게 알 사람이 없을 것이며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하고 냈던 것인데, 글을 받고 보니 많은 글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이 글 뜻을 바로 알고 지었으니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임금님께선 그 연유를 물어 보기로하여 유생을 불렀다. “그대는 어찌하여 ‘화도화’가 묵화인줄 알았느냐.”했다. 유생은 임금님 말씀에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엎드려 사죄하는 말이 “감히 어찌 임금님께 거짓 아뢰오리까. 실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채정승이 나타나더니, 오늘의 글감으로 일러 주어 그대로 지었나이다. 죽여 주옵소서.”라고 아뢰었다. 임금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나시더니 한숨을 쉬시며, “채정승은 생전에도 그러했거니와, 죽은 후에도 당할 수가 없구나.”했다는 것이다.

4. 통수바위

수원성 장안문 밖에는 영화동을 비롯하여 연무동 조원동 등이 있다. 연무동에는 수원성의 일부인 성곽 동쪽에 세워져 있는 동장대가 있어, 그곳에서는 군사훈련을 시켰던 곳이라 하여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연무대라고도 불리어 오고 있기 때문에 연무대가 있는 성 밖 일대를 그 이름을 따서 연무동이라 일컬어 오고 있는 것이다.

연무대 동북쪽에 조그마한 산이 있으며, 그 산 북쪽으로는 큼직한 바위가 우뚝 솟아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수원북중학교 뒤 울타리에서 얼마 안된 곳에 높지 않은 산이 있는데 연무동 산과는 반대로 이 산 동남쪽에 또한 큼직한 바위들이 수북히 쌓여 솟아 있어, 연무동 산과 마주보고 서 있다. 옛날에는 어느 곳에서나 큰 바위나 큰 나무, 또는 어느 산 고개마루턱에는 서낭당도 만들어 놓고 산 꼭대기에 서낭집을 지어서 섬겼던 풍속이 있다. 이 연무동 쪽 바위를 (할애비 통수바위)라 불려왔고, 조원동쪽 바위를 (할미 통수바위)라고 옛부터 불려오고 있는 이 바위에는 얹혀져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

이 양쪽 바위의 거리는 1km도 안될 것이다. 이 바위에는 어느 곳이고 신령님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왔고 특히 자손이 귀한 사람들이 정성껏 치성을 드리면 자손을 갖게 된다는 전설때문에 특별한 때의 집안의 안위를 비는 치성보다는 아들 딸 낳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러 오는 이들이 많았다. 옛날에 이 근처에 살고 있던 어느 부부가 있었다.

오랜 결혼생활 끝에 나이가 꽤 들어가도록 슬하에 혈육이 없는 것이 항상 한이 되어 오던 터였다. 그러므로 이 부부도 역시 남들처럼 치성을 드려 자손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남편은 연무동 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부인은 조원동 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백일 정성을 드리기로 했다. 그리하여 모든 금기 사항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정성을 드리는 동안에는 서로 아무리 할 말이 있고, 그리울지라도 모든 잡념을 버리고, 돌이 다 마음의 소원인 오직 자손만을 갖게 해달라는 치성예를 몰두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치성을 드리는 동안 만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무사를 서로 알리기로 하자는 묘안을 만들었다. 그것은 서로 양쪽바위 있는 곳으로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통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불어 무사함을 알리고 또한 그 통소소리에 의지를 굳혀가며 백일 정성을 무사히 마치기로 굳은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서로 헤어져서 치성은 시작됐다. 약속을 한대로 하루에도 몇번씩 빼놓지 않고, 통소를 불어 소식을 알렸으며, 여러날이 잘 지나갔다. 그후 날이 쌓이고 달이 쌓여 치성은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일까. 갑자기 어느날부터 조원 동쪽(부인) 바위에서 통소 소리가 안 들려 오는 것이 아닌가. 연무동쪽(남편)에서는 통소소리가 들려오지 않자 크게 걱정이 되어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그 연유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백일치성을 드리기로 한 그 약속 때문에 며칠 남지 않은 정성이 소홀히 될까봐 건너가 볼 수가 없었다. 안타까운 노릇이었다. 연무동 바위 위에서의 통소 소리는 연이어졌어도 대답의 통소소리는 영영 들려 오지를 않았다. 백일정성을 채우고 남편은 마음이 조급하여 치성이 끝나자마자 조원동 바위로 달려갔다. 그러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은 치성을 드리던 도중, 백일을 채우지 못한 채 병이 났으며, 통소를 불 기운조차 없어 혼자 신음하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만 것이었다. 자손을 얻으려다가 목숨마저 잃었으니 그 애달픈 심정이야 어떠했겠는가. 부인없이 쓸쓸한 세상을 살아 가던 그 남편 마저 그 후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부터는 이곳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애절했던 사연을 간직한 이곳을 이름하여 연무동 쪽의 바위를 (할애비 통수바위)라 했고, 조원동 쪽의 바위를 (할미 통수바위)라 불러 내려오고 있다.

5. 귀향

수원의 주산을 이루고 있는 것은 광교산이다. 옛날 이 산속에는 89암자가 있었다고 하며, 낙낙장송이 수없이 들어서 있어 아름다운 곳이었다. 옛날 세종 때의 학자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정인지는 당시 집현전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후에 세조를 도와 우의정이 되고, 하동부원군에 봉군되었다. 그의 후손이 상광교동에 살게 되었다. 몇대 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분의 학식이나 도량과 기지 모두가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인근 사람들은 이 분을 가리켜 이인(異人)이라고 까지 일러오고 있는 터였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쁜 일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이분께는 꼭 알려드려야 하고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으레 이분의 말씀에 따라 해결책을 지시 받아 처리해 나가곤 했다. 병을 고치는 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주나 관상을 보는 그런 분도 아니었다. 단지 많은 책을 읽어서 얻은 지식과, 보통 사람과는 달리 이상한 지혜와 기지로 판단하는 비범한 분이었다.

어느 때의 일이었다. 하광교동에 살고 있는 홍씨네가 있었다. 그집 며느리가 길쌈을 해서 베를 짜고 있었는데, 때는 여름도 지나고 초가을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땀흘리고 힘들여 가꾼 보람이 있었다. 그러나 벼이삭이 팬지 한참 됐고, 밭곡식도 모두 열매가 맺어 가는데, 수숫대는 하늘을 찌를 듯이 길게 자라, 수숫목이 미처 구부러지기 전이었다. 그리하여 쌀이 나올 때 까지는 한참 있어야 하므로 할 수 없이 수숫목을 잘라서 껍질째 땃돌에 갈아가지고, 수수 풀떼기를 해 먹어야 했다. 종일 베를 짜다 허기가 진 홍씨 며느리는, 수수풀떼기죽을 급히 먹었는데, 소화가 안되었던 모양으로 체하고 말았다. 홍씨 며느리는 베를 짜다가 별안간 배가 아프다고 펄펄 뛰었다. 그야말로 자반 뒤집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동네에는 의료시설은 커녕, 의원도 없고 약방도 없어 금방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어찌할바를 몰라, 할 수 없이 윗마을 정노인에게 갔다 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정노인은 온 사람에게 그 말을 자세히 듣더니 대뜸 하는 말이 “관격이 들었구먼, 그런 때는 배 훌이불에다 여인을 뉘어 놓고 장정 넷이 사방에서 훌이불을 들구 이리저리 굴리라구 하슈”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들은 심부름을 갔던 사람은 곧

내려와서 시킨대로 여인을 베 흠이불에다 뉘고, 이리저리 한참 동안을 굴렸더니, 나중
에 땀을 쪽 흘리면서 일어났다. 이것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서 배에서 내려만 가
면 낫는 병이있었다. 그리하여 일어나는 대로 또 베틀에 올라 앉아 베를 찼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는지 얼마 안되어서이다. 수원유수로 새로 도임해 온 분이 있었는데 본래의
집은 서울이었다. 그런데 그 유수의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왔던 것이다. 유수의 아
버지는 좋은 환경속에서 여러 달을 지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는데, 병이 나서 앓고 있었다. 음식도 맛이 없고, 잠도 안왔다. 병은 더해 가기만
했다. 유수도 들은 말이 있어, 상광고동에 훌륭한 분이 있다니 빨리 모셔 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정노인은 이야기를 한참동안 진지하게 듣고 나더니, 종이 쪽지에다 글자 두자를
써주는 것이었다. “아니 이것은 약방문 같지도 않은데 무슨 뜻입니까,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했다. 그 쪽지를 급히 가지고 와서 유수에게 주니 유수는 얼른 뜯어 보았다.

그러나 종이 쪽지에는 ‘귀향’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뜻을
짐작했다. 유수가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과연 그러했다. 부모를 잘 모셔드리자는
일념에서 이런 기회에 효도해 보겠다는 어리석은 것이었던가 하고 한탄을 한 나머지,
자기 아버지를 서울로 도로 모셔다 드렸다. 그랬더니 얼마 안되어 병은 거뜬히 나았다.
전에 함께 놀던 친구들이 찾아오고 또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서로 마음 터놓고
놀러 다니었으며, 자유롭게 활동을 하니, 병은 향수병이였는지라 저절로 나올수 밖에
없었다. 유수의 아버지라서 체면 지켜야 하고, 일반 사람들과 마음대로 어울릴 수도
없고 하여, 부자유한 생활을 거듭 하다 보니, 그야말로 무위도식만 하고 있었느니
생명이 된 것이며, 귀향해서 병을 힘 안들이고 고쳤다는 이야기다.

6. 삼십리 뽕 양반

수원지방에서는 언젠가부터 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발가벗고 삼십리 뽕다.’란 말이
전해내려오고 있다. 나쁜 뜻으로 알고 있는 이도 많다. 수원 사람은 경우가 밝다는 말도
있고 또한 인식하며, 셈을 하는데 너무 지독히 따진다는 말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우가 밝고 셈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남에게 폐 끼치는 일 안하고 모든 일을
사리에 맞게 한다는 말도 되며, 이재에 밝다는 말로 받아 들인다면 책망만 할 일은

아니다. 어디 사람은 개똥쇠니, 어디 사람은 오줌 맛보구 사느니, 뻔뻔스런 어디년이니 하는 따위 말로 헐뜯고 깎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근거나 이치에도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말로써 손바닥만한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오히려 민족간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밖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국토는 갈라져 있고 지난 전쟁통에는 민족의 유동이 심했었으며, 인구는 점점 팽창되어 가고 조그마하던 도시도 모두 대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케케묵은 근거없는 말로 쑥덕거릴 땐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왕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이었으니 그 내력을 여기에 적어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옛날에 수원도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양반 자손의 젊은이가 있었다. 그때의 시대상을 말한다면 우리 나라 사람만큼 조상 숭배사상이 강한 민족도 드물었을 것이다. 묘자리 안보고 묘를 쓰는 사람 없고 제사도 5대 봉사 후에는 시향을 지내야 하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좋은 자리에 모셔 드리는 것을 돌아가신 뒤에까지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듯 아무리 집안 살림이 빈곤 하다해도 조상의 제삿날은 잊지 않고 정성껏 지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왔다. 유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나 오늘날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풍속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 젊은이도 그 후예의 한 사람이었다. 평소에 조상의 산소 치산 잘 하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던 선비였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서는 비록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본받을 사람이라고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그 젊은 선비도 언제인가부터 친구들의 권에 못이겨 기방 출입을 하게 되었다. 엄한 집안의 가풍속에서 세상을 몸에 익히지 못한 선비인지라, 어느날 행화춘 꽃향기에 쉽사리 취하고 말았는데, 그곳은 수원부중에서 서쪽 서호의 잔잔한 호수가에 있는 주막이었다. 선비는 술을 들기 시작했다. 일배 일배 부일배하니 일만 시름이 다 잊혀지고 물찬 제비같은 기생 아가씨가 술 치는 땃시에 따라 머리는 점점 혼란해 갔다. 연약한 여자라지만 그 앞에선 더 약해진 선비, 뉘라서 예외가 있었으랴. 게다가 서도 남도의 가락이 재우쳐지니, 취흥이 도도해지고, 정신이 몽롱하여 선경에서 노는 느낌이어서 밤가는 줄 모르다가 제풀에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 후 취중에서 눈을 떠 생각해보다가 문득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바로 그날 밤은 선친의 제삿날이었다.

아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술마시기 전까지의 생각을 순간적으로 되살려냈던 것이었다. 친기를 못지냈다는 불효막심함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앞 뒤 생각할 여념조차 없이 술에 취하고, 잠에 취하고, 초조가 겹치는 혼돈 속에 문을 박차고 뛰쳐 나왔다. 삼십리는 닭 울기 전에 뛰어갈 것 같았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양반이 걸어 갈때는 의복 갖추어 두루마기 입고, 행장을 다하여 양반 걸음으로 걸으면서 행세하는 것이 정도였는데 꺾사했다간 집안 어른들께 꾸지람 듣고 불효자식 면치 못할 뿐 아니라, 동네에서도 웃음거리가 될 판인데 엉겁결에 행장 차릴 새 없이 바지 저고리 바람으로 삼십리길을 뛰어가게 된 것이다. 행이라 할지 자정이 넘기 전에 집에 당도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야말로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그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다. 점잖은 양반으로서 제삿날에 외출을 한 것부터가 예절이 아니었거늘, 의관도 정제치 않고, 발가벗고 30리를 뛴 셈이 됐다. 양반집 제삿날인지라 일가는 물론 타성까지도 사랑방에 모여 들었다. 제삿날만은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온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땅거미가 지나고 밤이 이슬하도록 나타나지 않은 제주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갔던 것이다. 모두들 큰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 속덕거리기도 했다. 예전에는 제사를 닭 울기 전에만 지내면 됐다. 그래서 축문에서도 제사를 지내는 그 이튿날 날짜를 적어서 지내게 마련이다. 그 날을 넘기지 않았으니 잘된 일이었다. 모두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 후문이 문제였다. 밤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때나 이때나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때라,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거쳐 이 동네 저 동네로 소문이 퍼져 갔다. 말은 말의 꼬리를 물고, 보태고 늘리고 급기야는 거두절미가 되어 ‘발가벗고 30리 뛰었다’는 말로 말이 굳어 버렸다. 더욱이 세월이 흐른 후에는 ‘80리 뛰었다.’ ‘동지선달에 뛰었다.’ 심지어는 ‘물속으로 고추가루를 먹고...’라는 식으로 억측과 과장으로 변질됐다. 여기에서 30리를 뛴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지만, 발가벗었다는 말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대에 발가벗고 뛰었다는 것은 몸에 옷하나 안 걸치고 뛰었다는 말로 어느 얼 빠진 사람의 행동일 것이라고 소위 요새 말하는 <스트리킹>쯤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 모든 법도나 사회제도에 있어서의 가치기준은 오늘날과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 즉 의관 제대로 안입고 더군다나 양반이 뛰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동저고리 바람에 뛰었다는 이 말의 과장을 거쳐

발가벗은 결과로 규정되었을 것이다. 80년 전에 쓴 수원군읍지에 보면 성내를 중심으로 살았던 인구는 5,000명정도, 현재 75만을 헤아리는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를 하여 사라져 가는 옛이야기로서 생각해 본다. 그러나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근원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수원부중에서 남쪽으로 6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떡점거리가 있다. 삼남지방에서 한양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거리를 꼭 지나가게 되며 이곳에서 자고 다음 날 과천을 거쳐, 그 이튿날에야 한양에 올라가게 마련이었다. 그렇다고 떡점거리라 해서 떡만 팔지는 않았다. 한창 번성할 때는 음식점, 술집, 저자도 있고, 술집에는 술 따라주는 여자도 있으며, 노름판이 벌어지는 것도 상례이다.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은 돈을 쓰게 되고 술에 취해 손해를 보는 것이다. 노름 본전 찾으려다 돈 더 잃고 나중에 싸움 나고, 매맞는 것은 타향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감추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나중에 고향에 되돌아 가서 욕하는 것은 수원 놈들 각정이니, 지독하느니 하고 몰아 붙였을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수원 사람에게 비리가 있어 상부에 고한다 해도 당시 정조께서는 그 아버님 산소를 이 근처인 화산에 모시고 있는지라, 묘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다소 잘못된 일이 있다 해도, 관대하게 처리하라는 분부로 두호를 받고 있어, 그런 이야기가 결부 되어서 나쁜 방향으로 퍼져 가서 욕을 먹게 마련이었을 것이다.

7. 송충이를 깨물다.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께서는 그 아버님이신 사도세자의 산소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의 화산으로 이장을 하고 산소 참배에 자주 행차를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모처럼 능참봉의 뉘두리도 있지만 어찌 한달에 스물아홉번씩이나 임금님이 행차를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다만 어버이 산소를 자주 다녔다는 과장된 표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정조께서는 산소를 모신 화산은 물론 지대고개에서부터 수원성일대에 나무를 많이 심으셨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소나무를 비롯하여 잣나무, 상수리나무, 밤, 호도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을 1년에 두 번씩 심었고 또 종자를 파종했다는 기록도 있다. 20년 간이나 장기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산은 점점 푸르려 갔고 소나무들의 숲은 울창해 가기만 했다. 앞을 내다 보고 여유있게 사는 마음, 우아하고 넉넉한 선인들의 도량을 이곳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지금도 화산에는 옛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지만 간간이 우뚝 서 있는 정조대왕의 마음이 심어져 있는 소나무들을 본다. 수원의 상징은 지지대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멋대로 구부러져 서 있는 노송지대에서 느낄 수 있다는 여행객의 말도 있다. 화산능 일대의 조림에는 당시 나라 여러 곳에서 종묘나 씨앗을 채취해 와서 인공적으로 계획조림을 했다는 것이며, 도내에서 많은 장정들을 동원하여 사역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국력을 쏟고 많은 힘을 모아 조림을 했는데도 예나 지금이나 소나무를 갹아 먹는 송충이는 큰 두통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송충이의 피해는 대단했고 구제를 하는데도 여러가지로 손을 썼지만, 잘 되지 않아 크게 고심을 했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굵기야는 화산 근처에는 물론 여러 고을에 영을 내려 송충이를 잡도록 했으며, 잡아 온 송충이에 대해서는 한 주발에 엽전 7푼을 그 댓가로 주었고, 그렇게 열심히 잡아온 송충이는 무려 수천섬에 달했다고 한다. 산림보호에 이와같이 막대한 경비와 노력을 쏟은 일은 그 어느 때에도 없었던 일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발생한 송충이는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 하루는 정조께서 화산에 송충이가 대단히 만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행차를 서둘러 화산에 도달했다. 친산에 도달해서 사방을 둘러 보니 과연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송충이의 기승은 말이 아니었다. 임금님이라도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순간 정조께선 어떤 결심을 했다. 그리하여 송충이를 친히 잡아서 이빨로 깨물면서 ‘아무리 미물일 망정 네 어찌 내가 그리도 정성껏 가꾼 친산의 솔잎을 모두 갹아 먹느냐.’ 하고 꾸짖었다. 그 순간이었다. 온 소나무에 붙어서 솔잎을 갹아 먹고 있던 송충이들은 임금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는 화산에 얹혀 내려오는 정조대왕과의 전설의 하나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고 아니고는 그만두고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로써 정조대왕이 평소 부모에 대한 효성이 어떠했느냐의 증거이며, 참된 효심의 발로가 아니었던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하는 하는 것이다. 그런 때의 일이었다. 흉년이 드는 때면 백성들은 굶기가 어려워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송기떡이나 송기죽을 쑤어 먹었다. 그 뿐 아니라 철모르는 어린애들은 한참 자라나는 소나무 윗대를 꺾어서 송기를 해 먹기가

일쑤였다. 배가 고파서만은 아니었다. 봄이 되어 나무에 물이 오를 때면 꺾꺾질을 벗기고 속살을 훑어서 씹어 먹으면 그것에서 단물이 나온다. 그런 맛에 나무는 망가지든 말든 송기를 해 먹었다. 송기를 해 먹은 막대기는 아이들의 자치기에 쓰기도 한다. 그래서 정조께서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하여 쿡을 볶아서 주머니 속에 넣어 소나무마다 매달아 놓았다는 것이다. 그 쿡을 따서 먹고 소나무는 꺾지 말라는 것이었다. 한참 자라가는 어린 소나무의 끝대를 꺾으면 그 소나무는 꽃꽂이 자라날 수가 없고, 결국은 쓸모없는 구부러진 나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렇듯 정조대왕의 효심에 대하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수원지방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8. 벼락과거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 때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 된다. 정조대왕께서는 그 할아버지이신 영조대왕에 의하여 애처롭게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를 양주 백봉산에 모시어 영우원이라 했던 것을, 정조께서 임금님 자리에 오르신 뒤 정조 13년(1789)에 이르러 양주에서 수원땅으로 이장해 모시게 되었다. 이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산소 자리를 여러 곳에서 골랐지만, 지금의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가 제일 좋은 곳으로 채택이 되어, 산소를 현릉원이라 했고, 장헌세자로 그 이름을 고쳐, 이곳 화산에 모시게 되었던 것이다. 화산 일대는 옛부터 내려오는 수원부의 도읍지였다. 그러나 산소를 모신 뒤에는 도읍을 폐지하고 지금의 팔달산 밑으로 옮기게 했던 것이다. 정조께서는 아버님의 산소를 화산으로 모신 뒤에 자주 참배를 하시러 오셨다. 비록 돌아가시긴 했지만,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느 일반사람 보다는 더해서 그 효성이 지극했다. 오히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나라 일에 까지도 소홀히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쉼게 가신 아버님을 왕위에 올려 드리는 추존이 되어 장조라 했고, 융릉이 되었다. 정조께서는 지극한 효성에서이기도 했지만, 백성들이 그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백성들은 그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룩한 뜻을 항상 잊지 않았다.

그 후 어느 땐가 정조께서는 뜻한 바 있어, 사복 차림을 하고 산소를 모시고 있는 안령리 농토가 있는 한 곳을 지나게 되었다. 임금님이 행차를 할 때는 모든 의전 절차가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어떤 뜻이 있어 암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분의 행적을 아는 이는 없었다. 그때 마침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던 한 농부와 만나게 되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끼린 오래 담배불로 시작하여 길도 물어보고 이런 말 저런 말 통성명을 하기가 일쑤인데, 그 사람은 간촌 사는 이생원이라 했다. 인사가 끝나고 금방 익숙해졌다. 정조께서 이곳을 처음 지나는 행인처럼 행세를 하면서 불쑥 말을 꺼내었다. 화산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저곳은 무엇을 하는덴가요.”하고 물었다. 자기의 아버지 산소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치미를 딱 떼고 물었던 것이다. 그 농부는 대뜸 격한 어조로 대답했다. “여보, 당신은 보아하니 옷입은 차림새 하고, 어느 모로 보나 선비임에 틀림없을 터인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요.”하고 통명스레 대답을 했다. 그러나 선비는 정말로 어떤 곳인지 몰랐다는 투로 재차 의아스러운 듯이 물었다. 그제서야 타처에서 와서 처음 지나는 행인으로서 알 리가 없을 것이라는 듯이 정색을 하고 정중하게 일러 주었다. “그러니까 저곳은 뒤주대왕이신 애기능이라오”하고 설명까지 곁들였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도세자의 죽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추존은 못했더라도 장차 왕이 되셨어야 했을 분이었는데 그 억울한 것을 생각해서 대왕이라 불렀고 임금님의 산소를 능이라 부르는 것과 같이 왕이 안되었으니까 애기능이라 불렀다는 말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정조께서는 마음속으로 몹시 감탄을 했다. 나라에서도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는 것과 대신들의 반대에 의하여 추존을 못하고 있음이 죄스러운 생각마저 드는데, 한 농부의 입에서 서슴치 않고 “뒤주대왕이신 애기능이라오”까지 하니 정조대왕의 마음이 얼마나 호뭇했겠는가. 그래서 그런 기분에서 정조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문득, “글을 배웠소?”하고 물었다. 농부는 “책도 읽었고 과거도 보았지만, 그때마다 낙방만 했소.”했다. “내가 오다 보니까 긴급히 과거를 본다는 방이 붙었습니다.”하고 일러 주었다. 그러면서 이생원한테 이번에 기회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응시해 볼 것을 은근히 권유했다. 그 농부는 그말을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으면서도 선비의 간곡한 권유에 한번 더 보겠다는 대답을 했다. 말 한마디면 서로 믿고 살던 때인지라 거짓말로 들을리가 없었다.

정조께서 본의 아니게도 거짓말을 했다. 환궁 하시자마자 즉시 방을 붙였다. 그리하여 얼마 후 과거 보는 날이 당도했다. 응시자가 많지 않았으며 이생원도 고시장에 나왔다. 그러나 이생원이라 해도 그때 그 선비가 바로 응시장에 나와있는 정조대왕이었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다. 글제가 나왔다. ‘간촌 이생원과 어느 선비의 대화’를 쓰라는 제목이었다. 판 사람들이야 그 뜻을 알 도리가 없었고, 적당히 멋대로 썼을 터이니 얼토당토 않은 말이 되었을 것이 뻔했다. 간촌 이생원이야 얼마 전에 우연히 어느 선비와 자기가 겪은 일이었으니, 그때의 기억들을 더듬어서 대화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했다. 이생원이 지난 날 과거를 볼 때마다 낙방을 하기는 했지만, 과거를 본 경험이 있어 자기가 배운대로 대화 내용대로 써서 냈으니, 그 한사람만 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간촌 이생원은 벼락과거를 했다. 그전에 몇번이고 낙방을 했을 때와는 대조적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가는 말할 수 없었다. 이생원은 장원급제를 하여 금의환향을 했다. 이생원이 농촌에 살고 있었던 관계로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본래는 양반 집에 태어나 부모 덕분에 글도 많이 배웠고, 얼굴 생김새나 성실했던 인품과 그 도량으로 보나, 나무랄데 없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벼락과거이긴 했지만, 인근 동네에서는 칭찬이 자자했었다. 화산능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이야기의 근원을 알고 싶어서 간촌이라는 곳이 어디인가와, 이씨가 살고 있던 곳이 어디인가도 알아보았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성을 차지하고 있는 이씨가 안 살고 있는 곳이 없고, 더 자세히 찾아 내야 할 다급한 문제도 아니고 해서 더 이상은 알아보지 않았다.

9. 대황교

옛날 정조대왕께서 그 아버지인 장헌세자의 묘소였던 현릉원에 다니시던 길 수원부를 떠나 윗버드네 아랫버드네를 지나서 더 내려가면 황구지천을 이루는 두 줄기의 지류에서 한데 모여지는 곳에 돌다리로 된 대황교가 있었다. 원래는 알게 놓여져 있었고 산남지방에서 이 길을 거쳐 한양으로 가던 큰 길이 있었다. 이 길은 시대의 발달과 함께 통행하는 교통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번잡한 1번 국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옆에 크게 다리를 더 놓고 다니는 바람에, 이 대황교는 쓸모없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비바람에 허몰어 지고 수해를 입어 그 이름이 있던 다리가 볼모양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화성군 당국에서 이 돌다리를 모두 옮겨서 용능 바로 입구에 놓으므로써, 본래의 형태를 일부나마 재현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대황교는 임금님이 건너 다니는 길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다리의 이름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 중국에서는 우리 나라를 자기네 속국인 것처럼 여겨 앞잡아보고 하대를 하며 모든일에 간섭하던 시대였다. ‘조선에서 대황교란 이름을 다리에다가 붙여서 쓰느냐’ ‘조그만 나라가 우리에게 말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식으로 중국만이 황제란 이름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다른 의논할 일도 있었지만, 우선 대황교란 다리의 이름에 대하여 질책을 할 생각으로 사신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적임자를 뽑아서 중국의 사신을 보내게 되었다. 중국에 가는데 많은 날짜가 걸렸다. 육로로 가도 그렇고 해로로 간다해도 여러날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었다. 조선 사신이 중국에 도착하니 중국 임금의 어미가 죽어서 마침 상이 났다. 조선 사신은 다른 불일 보다는 먼저 조상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상옷을 입고 예의를 갖추어 상주인 임금에게 조상을 했다. 상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놀라는 기색이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조선을 떠나온지 한달은 걸려서 도착한 사람일텐데 도착하자마자 상옷을 자기 행장에서 꺼내입고 버젓이 조상을 하였으니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중국은 연유를 물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심했을텐데. 오자마자 조상을 해주니 고맙소만은, 상옷은 어찌 된 것이오.”했다. 조선 사신은 말했다. “제가 우리나라를 떠날때 중국의 천기를 보고 모든 것을 점쳐보니까 몇년 몇월 며칠 몇시에 임금께서 상을 당하실 운수이므로,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중국 임금은 생각을 했다. 한 달 후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 갈 것을 다 알고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상옷까지 입고 예의를 갖추어 조상을 해 주었으니 고맙기도 하거니와 대단하게 느껴졌다. 또한 그 성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중국 임금은 당초에 생각했던 대황교에 대한 꾸짖음 같은 것은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조선을 엮신 여길 수 없는 선견지명이 있는 나라이구나 하고, 이 유명한 사람을 책하려 들다간 오히려 무슨 일을 당할 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묻지말고 덮어

두어야겠다고 중국 임금은 생각을 했다. 중국 임금은 명을 내렸다. 조선 사신이 먼 길을 오느라고 피곤했을테니, 잘 대접을 하여 묵게 하라고 했다. 조선 사신은 그곳에 있는 동안 융숭한 대접을 받고, 사신으로서 목적인바 할 일을 다 마치고, 아무 일 없이 되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걱정을 했던 대황교란 다리의 이름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의 물음이나 책망도 듣지 아니하고 사신의 기지로서 해결이 되었다는 수원지방에서 내려 오는 전설이다.

10. 곤장 한 대

쉽게 가신 사도세자의 명복을 비는 용주사는 정조대왕께서 즉위하고 양주 땅에서 화산으로 이장한지 3년 후에 지은 사찰이다. 일설에 의하면 용주사는 절로서의 목적도 있었지만, 현릉원에 속하게 하여 제향에 쓰는 두부를 만들어 바치는 절이었다고 하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이 절은 본래 신라 36대 문성왕 16년에 창건한 갈양사터에 건립한 것으로 정문을 들어서 보이는 탑은 용주사 건립 당시에 세운 것이지만, 대웅보전 옆에 뒤 울타리 앞으로 보이는 주춧돌과 석조칠층탑은 갈양사것으로 보이며, 지금으로부터 1,100여년 전이나 되는 국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탑이라 할 수 있다. 용주사는 1913년 경에 조선사찰영에서 규정한 우리 나라 31본산의 하나이다. 정조와 용꿈, 용주사와 정조에 얽혀 있는 일화는 여러가지가 있다. 영조 28년 9월 22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정조가 탄생 했을 때의 일이다. 전날 밤 그의 부친인 사도세자는 꿈에 황룡이 경춘전으로 들어가는것을 본 후 정조가 탄생하였으므로 그 기쁨을 기념하기 위하여 용을 친히 그려, 전내동벽에 걸어 놓았다고 한다. 용은 옛부터 수족의 왕이라 하여 상상적으로 일러 오는 전설의 동물이긴 하지만,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 왔고, 용꿈 10년 간다는 것처럼 인간들은 숭상의 대상으로 여겨 오고 있어 절 이름을 용주사라 지은 것도 있을 법한 일이었다. 정조 때는 용주사를 보경스님에게 주재케 하고, 또한 팔로도승원을 설치하여 전국에 있는 사찰을 통어케 했다는 것이다. 정조께서 화산에 자주 거동을 하시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로 그때마다 용주사 승려들은 목청을 돋구어 경을 읽으며, 등불을 넓은 경내에 대낮처럼 밝혔다. 당시 그들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으며, 웬만한 벼슬아치는 눈 아래로 보

기가 일쑤였다 한다. 그 당시는 왕으로서도 특별히 두호를 해 주었고, 왕의 힘을 믿은 중들은 기세가 등등한 것은 물론 행패가 극심했다는 것이다. 하루는 용주사의 중 하나가 민가에 나갔다가 어느 과수집에서 과수를 지나치게 횡령했다. 울타리 틈으로 성기를 들어 대고 소변을 보는 등 행패가 너무 심하자 젊은 과수는 참을 수가 없어 그 즉시로 수원부에 중을 벌해 달라고 고하게 되었다. 이런 행패는 전에도 있던 일 이므로 동네 사람들도 참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지만 중의 지나침을 변연히 알면서도 이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후환이 두려워서 수수방관 할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왜냐 하면 그들 뒤에는 나라님과 서슬이 시퍼런 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중들은 갈수록 더욱 기고만장하여 수원성 안팎 거리가 좁다는 듯이 활개를 치고 다녔다. 당연히 과수의 고향을 받은 관가에서도 걱정거리였다. 그러나 부사인 조심태는 일찍이 맹호같이 위풍이 있고 강직하기가 대나무 같은 사람으로서 매우 현명했다. 그렇지 않아도 빈번한 중의 행패를 지켜보아오던 터라, 곧 관속을 시켜 그 사실을 조사케 하는 한편 즉시 잡아 오기 전에 벌써 대궐에 연통을 했다. 대궐에서는 영이 내렸다. 잡혀간 승인은 죄상이 중하지 않은 듯하니 훈방해 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사로서는 그냥 놓아 주었다가는 백성들의 원성도 그리 하려니와 앞으로 더욱 심한 중들의 행패를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부사는 그 중의 죄상으로 보아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상소를 다시 올렸다. 나라에서는 관가의 위신도 있고하여 체면은 세워야 겠으니 징계로서 곤장 1대만 때려서 놓아 주라는 왕의 친교가 내렸다. 부사는 그 중을 본보기로 엄중히 다스릴 작정으로 상소를 올렸는데 ‘곤장 1대로 다스린 후 놓아 주어야 할 형편인데 단 1대의 곤장으로 백성의 마음을 주겠다.’ 이말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으므로 감히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후 키가 작달막하고 혈기왕성한 옥사령 한 사람이 자신을 하고 나왔다. 그리하여 중을 데려다가 벗기고 형틀에 묶었다. 그렇지만 중은 곤장 1대에 그칠 것을 알고 있어 잠시만 참고 있으면 석방 되리라고 안심하고 있었다. 이때 사령은 옷통을 벗어 젖히고 곤장을 움켜 쥔 팔에 힘을 주었다. 사령은 중이 옆드려 있는 곳에서 십여보 뒤로 물러 섰다가는 곤장을 높이 들고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무서운 동작으로 달려 들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사령은 곤장을 내려 치진 않았다. 그리고 다시 뒤로 대여섯 걸음을 물러 서더니 또 바람같이 달려 들었다. 그러나 역시

때리지 않고 다시 물러 서기를 여러번, 사령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맺히고 숨결이 거칠어 졌다. 중은 사령이 달려들 때마다 온몸이 오그라 드는 것 같았다. 때리려고 할 때마다 힘을 주었다가는 긴장이 풀리곤 했다. 몇번쯤 거듭했을까 이번에도 거짓일 것이라 여겨 힘을 안주고 있을 때 사령은 이 때를 놓칠세라 쏜살같이 달려들어 모진 바람을 일으키며 중의 볼기를 쳤다. 그것은 똑바로 항문에서 위로 치켜올리며 되게 때린 것이다. 그랬더니 중은 별안간 웃음같은 괴상한 비명과 함께 죽고 말았다. 중이 옆드려 있을 때 사령이 몇번이고 때릴 듯 하다가 물러 서니까, 안때리는줄 알고 마음을 폭 놓고 항문을 열어놓고 있으려니 그 기회를 잡아, 항문을 치받쳐 때려서 곤장 바람이 간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웃다가 죽은 것이라 했다. 조정에서도 한편으로 염탐을 해보니 곤장 1대를 때린 것이 사실인지라 어찌 할 바가 없었다. 그런일이 있는 후부터는 중들의 행패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11. 정조와 지지대

정조께서 세손으로 계실 때의 일이다. 못된 신하들이 영조대왕께 아뢰어 세손이 읽으려는 시전요아편을 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못 읽게 하는 것은 굳이 읽어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 심리인지라 세손이 어느날 몰래 책을 펼쳐서 읽어보니, 부모를 잃은 자녀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귀절이 있었다.

부 혜 생 아 ;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모 혜 극 아 ;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으니
 육 보 심 은 ;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호 천 망 극 ; 하늘이 우리러 통곡을 하여도 다 할 수가 없다.

세손이 이 대목을 읽는 것을 어느 간신이 보고 영조께 아뢰었다. 영조께서는 크게 진노하시어 세손을 오라 하시고 한편으로는 내시를 시켜 읽고 있던 책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그러나 뜻밖에 시전요아편 책장이 오래져 있지 않은가. 그것은 홍국영이 마침 동궁에 있을 때 세손이 어전에 불러나가는 것을 이상히 여겨 무슨일이 있을까

하는 예감이 들어 세손의 방을 가 보니 시전요아편이 펼쳐져 있는지라 그 책장을 장도로 올려냈던 것이다. 영조께서 책장을 올려낸 것이 무슨 까닭이냐고 묻자 세손은 그 책을 읽지 말라시는 분부이기에 그리했노라고 영집결에 대답을 하여 무사했던 것이다. 그 후 정조께서 왕위에 오르신 후 부친을 모신 화산 현릉원에게 자주 참배를 하시었다. 그러나 참배가 끝나면 즉시 환궁하셔야 할텐데 그렇지를 못하여 신하들은 늘 걱정이었다. 그러나 임금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라 한편 위안을 해 드리면서 환궁하실 것을 권하니 왕께서는 ‘지극한 슬픔이 속에 있으니 어떻게 참을 수가 있느냐’ 하시고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를 못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명일화성회도 지지대우지지”란 글을지어 화성을 떠나기가 싫음을 읊었다. 부친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넉넉히 알 수가 있다. 수원을 떠나 환궁하신 길은 북쪽에 있는 고개를 넘어야 하고 이 고개를 넘으면 한동안은 다시 어버이의 묘소마저 바라볼 수가 없음을 한탄하시며 얼마쯤 가시다가는 멈추어 화산을 바라보시고, 또 가시다가는 멈추고하여 그때부터 그 고개를 지지대라 불려온 것이라 한다. 그러나 지지라는 뜻이 보통 느리다는 것이 아니고 옛부터 부모를 생각해서 지지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라 한다. 즉 옛날 공자가 노나라 사관 벼슬에서 물러나 노나라를 떠날 때 공자의 걸음이 너무 지지함에 제자인 자로가 어찌 그리 발걸음이 느리냐고 그까닭을 물어본 즉 공자가 하는말이 노나라는 나의 부모지향이니, ‘더디고 더딘 나의 걸음이여라, 부모의 나라에서 내가 가는 때문이여라’ 한데서 그때부터 이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더욱이 어버이를 모신 곳을 떠나가는 정조왕의 발걸음이 가벼울 리가 없고, 공자의 말과 같이 역시 걸음이 더디다는데서 지지대라 이름지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정조대왕께서 지은 지지대 시의 그 첫귀절 ‘이르나 저무나 사모하는 마음을 다하지 못하여 이날에 또다시 화성에 왔구나.’에서 보더라도 어버이를 사모하는 마음은 여실히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